

한국사회와 안전의식 그리고 교육



글 |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은 활력이 넘치는 나라다. 한국인의 독특한 활력은 발전의 잠재력도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각종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 활력이 넘치는 나라 한국, 그 장점과 부작용

한국은 활력(Vitality)이 넘치는 나라다. 중국 고문헌에 보면, “동이족(한국인의 조상)들은 가무를 즐기며, 활을 잘 쏘고, 길거리를 다닐 때도 뛰어다닌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길거리는 어디든 활력이 가득 차 있다.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도 땀을 흘린다.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길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흡사 100m 경주 선수처럼 신호등을 노려보고 서 있고, 발은 앞으로 내딛을 준비를 한 대기 태세로 들먹거린다.

한국 사회처럼 이사가 잦은 나라도 드물다. 전체 가구 중 연간 이사하는 가구가 24%에 이른다. 선진국 이사율 평균치 10% 내외를 2배나 앞선다. 한국인들도 이사가 어찌 귀찮고 성가시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한국인들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귀찮은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활력이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다.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해놓고 차마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아마 이런 활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만히 멀뚱하게 음식만 기다리며 있는 것 자체가 활력이 가득한 한국인들에게는 고역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활력은 삶의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상승욕구(Social Mobility)라는 것이 있다. “5년 후에 당신의 삶은 얼마나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까?”에 대한 대답이 이 상승욕구의 수준을 나타낸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는 답변은 상승욕구가 매우 높은 5점으로,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답변은 매우 낮은 1점으로 판단한다. 한국인의 경우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3.0점 이상)가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그런 낙관적인 답변은 40% 내외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상승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 되며, 이것이 한국인의 활력이 강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이런 활력이 경제 발전도 일구어냈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스포츠 강국이 되게 하였으며, 한류와 IT강국, 그리고 떠들썩한 월드컵을 치러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국인의 활력은 장점과 강점도 가지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다. 활력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보니 자주 부딪치기도 한다. 부딪치는 빈도와 강도가 많고 커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다. 활력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서로 먼저 가려

한국인의 활력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우리는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이라는 말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는 경쟁을 하다 보니 자동차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가 아직도 연간 8,000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세계에서 사망률이 5위 이내로 매우 높다. 선박사고 발생률도 매우 높고, 재난 및 안전사고도 인구대비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일반사고 즉, 살인, 강도, 폭력 사건의 경우도 인구대비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인구 10만명 당 살인사건 발생빈도가 1.7배, 강도사건은 3배, 폭력사건은 38배나 많다고 한다.

이런 수치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내재한 높은 활력이 상호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또한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의 독특한 활력이 발전의 잠재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활력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 활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잘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우리는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이라는 말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특히 최근 30여 년 동안 돌진적

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한국인다운 활력이 부작용으로 작용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예컨대 “빨리 빨리” 성격 같은 것이 그것이다.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삼풍백화점 붕괴의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의 설계 능력이나 시공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처리하는 성격적인 요소가 그런 재난의 단초가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안전교육을 필요로 한다. 한국인의 활력, 불같은 성격을 잘 유도하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준비시켜 둘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이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대한 좋은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쓰나미에 대한 안전교육을 잘 받아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10세의 영국 소녀 킬리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다.

2. 킬리 스미스 이야기

2004년 12월 26일은 재앙의 날이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의 해저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 그 결과 상상하기 어려운 강도의 해일이 만들어졌고, 이는 인근 여러 나라의 해안가를 덮쳐 수십 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신의 노여움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는 이 재앙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눈 깜짝할 순간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인가? 자연의 재앙 앞에 인간은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재앙에 대한 수습이 시작되면서 사상자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커다란 배가 언덕 위로 끌어 올려졌고, 아름답리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힌 이 엄청난 괴력의 해일을 과연 누가 피할 수 있었을까? 누구든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재앙의 상황이 목격자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 괴력의 쓰나미가 덮친 모든 해안가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 시간과 장소, 대처방식에 따라 재앙은 다른 방식으로 그곳의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었다. 어떤 이는 요령 있게 대처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 사람들에게도 재앙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가 갔다.

하느님의 노여움이라고 보기에는 대피요령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하느님의 벌이라면 대피요령의 숙지만으로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의 쓰나미 피해는 동물들에게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한다. 하느님이 동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쓰나미를 예측하는 본능에 불박힌 육감(肉感)이라는 능력이 발휘된 때문이 아니던가? 쓰나미의 속성을 알고 요령 있게 대처한 사람은 이번 재앙을 비켜갈 수 있었다. 지식이 힘이었던 것이다.

쓰나미가 몰려오던 그 시각에 10살짜리 영국인 소녀 킬리 스미스는 태국 푸켓 지역의 한 해안가인 마이카오에서 파도를 즐기고 있었다. 엄마 곁에서 파도를 응시하던 그녀는 거품을 일으키며 점차 거세지는 파도, 그리고 떠밀려오는 죽은 물고기를 보면서 얼굴이 파래졌다. 휴기를



떠나오기 2주전 고향의 학교에서 배운 쓰나미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틸리는 엄마에게 알렸다. 이제 곧 무시무시한 쓰나미 해일이 덮치리라는 것을... 누구든 이에 맞설 재주는 없고 오로지 높은 곳으로 피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을... 엄마는 이를 호텔 종업원에게 급히 알렸고, 호텔 측은 온갖 방법으로 해안가의 모든 관광객을 높은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래서 그 호텔 주변의 해안가에서는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다.

10살짜리 틸리 스미스의 귀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관광객 수가 100여 명이 넘었다. 결국 틸리의 쓰나미에 관한 지식이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그 쓰나미 재앙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 로이터 통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틸리 스미스의 이야기는 몇 가지 경이심(驚異心)을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는 10살짜리 틸리가 2주 전에 영국에서 배운 쓰나미 학습 내용과 태국 푸켓의 파도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살짜리 틸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호텔 종업원에게 전한 엄마의 말에 대한 신뢰심이다. 세 번째는 해변가에서 자유분방하게 즐기던 관광객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시불란하게 호텔의 대피 지시를 따라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틸리 스미스는 인터뷰에서 “쓰나미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하지 않고, “쓰나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마쳤다.”는 표현을 썼다. 그 어린 소

너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여준 쓰나미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예민성은 듣고, 읽고, 외운 지식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몸으로 생생하게 체득한 경험의 집적물인 것처럼 보인다. 학교 수업이 삶의 현실과 이렇게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더 경이롭게 느껴진다.

3.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 미국 FEMA의 예

모든 재난과 안전의 위협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재난과 안전의 위협에 대해 예방하는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그 위협은 더 용이하게 피해갈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일찍부터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구체적인 기관이 1975년에 카터 대통령이 창설한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국연방재난관리청)이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정점의 기관으로서, FBI(연방수사국)와 대등한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기본 정신이자 모토는 “준비하자(Be Prepared).”이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FEMA 활동은 안전교육에 집중된다. 특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안전교육에 엄청난 예산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한다.

워싱턴 DC의 알링톤 부근에 있는 FEMA의 부속 연구소와 연수원은 365일 언제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붐빈다.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 덕분에 미국은 재난과 재해의 발생

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이고, 그 발생에 의한 피해도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다. 9.11 테러 이후 FEMA는 국가보안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에 소속되면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일본도 1995년 고베 대지진 사건을 계기로 FEMA를 본받아 재난관리청을 신설하여, 재난에 대비한 위기예방 및 위기관리능력을 배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수많은 재난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전문적인 위기관리의 책임을 아직 행정부나 국회 등의 고위 행정가와 정치인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교육부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대기업들이 위기관리의 절박한 필요를 일찍부터 감지하여, 자체 기업 내 재난관리팀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의 확산은 이제 매우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누가 더 책임이 크고,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등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로 여겨져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곧바로 착수되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 되었다. 생명과 안전이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틸리 스미스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FEMA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